



# “야권통합 큰 그림으로 보면 서울시장 경선 패배 아니다”

### 하루만에 복귀한 손학규 대표와 민주당 진로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5일 사퇴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서울시장 후보 경선 패배의 파동은 일단락되는 국면이다. 하지만 무소속 박원순 후보의 민주당 입당 문제가 민주당의 위기 국면 수습에 최우선 관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박 후보가 입당을 끝내 거부할 경우, 당내 반발 등으로 서울시장 선거 지원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추후 야권 통합 등에도 악영향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손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어 “당 대표의 책임에도 의원 여러분께서 저의 사임을 극구 만류하고 의원총회를 통해 사퇴 철회를 결의했다”며 “책임을 안고 가되, 서울시장 선거에서의 승리를 이끌고 야권통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통합후보가 된 박 후보는 민주당의 후보며 당원이나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과 함께 “박 후보로 단일화 된 것은 민주당의 패배가 아니라 더 큰 민주당의 승리로 깨달으라는 뜻이 담겨있으며

박 후보가 이기면 민주당이 이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손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박 후보의 민주당 입당 문제에 대한 교동정리로 풀이된다. 박 후보가 입당을 거부하더라도 후보 단일화 과정을 거쳤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총력 지원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 후보가 최종적으로 입당을 외면할 경우, 당내 반발과 함께 민주당의 서울시장 선거 지원 동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과 함께 우려해다.

당내 비주류 측 인사들은 “박원순 후보가 입당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자칫 틀러리 위치에 머물 수밖에 없다”며 “이는 추후 야권연대 및 통합 과정에서 민주당의 입지를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후보의 민주당 입당 여부를 떠나 서울시장 선거 승리도 민주당의 최대 과제다. 시민사회 후보가 나서고 있지만 민주당과의 후보 단일 함께 “박 후보로 단일화 된 것은 민주당의 패배가 아니라 더 큰 민주당의 승리로 깨달으라는 뜻이 담겨있으며

민주당의 적극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안풍(안철수 바람)으로 형성되고 있는 야권과 시민사회의 ‘반 MB 전선’에 균열이 불가피하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권 통합과 연대의 동력을 약화시키고 당내 갈등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한편, 과감한 ‘변화와 개혁’도 민주당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해결해야 할 최대 과제다. 서울시장 후보 경선의 패배를 계기로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상징적인 조치를 내놓지 않는다면 민주당의 미래가 암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손 대표가 “(지난 3일 경선에서) 유모차를 밀고 가족과 함께 투표장으로 밀려오는 시민들의 물결은 바로 우리 사회를 강타하고 있는 변화의 물결”이라며 “정치와 정당의 변화에 대한 국민의 열화와 같은 요구”라고 강조한 것도 민주당의 개혁에 무게를 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서울시장 선거 이후, 과감한 기동권 포기 등 변화와 개혁의 상징적인 조치를 통해 민심과의 소통에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박원순 민주당 오늘 오전중 결판

### 야권연대·대통합 영향 정치권 측각 곤두

무소속 박원순 후보의 민주당 입당 여부가 막판 초읽기에 들어갔다.

박 후보 측은 5일 저녁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늦어도 6일 오전까지는 민주당 입당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박 후보의 민주당 입당 여부는 서울시장 선거구도는 물론 추후 이뤄질 야권연대 및 통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이 측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5일 박원순 후보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55주년 기념식에 참석, 민주당 입당여부에 대해 “내일 모레(7일)까지 공식 후보 등록이라 주변 말씀을 듣고 있다”며 “오늘 중에는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가 민주당에 입당할 경우, 서울시장 선거전은 여야의 대결 구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박 후보의 민주당 입당은 후보를 내지 못해 손학규 대표의 사퇴 소동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 민주당에게도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박 후보의 민주당 입당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박 후보 측에서는 선거 전 막상 기존 정당에 들어가는 것이 득보다 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서는 박원순 야권 단일후보가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동교동 김대중도서관을 방문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들이 일으킨 바람을 본선에까지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야권 후보 단일화 경선에서 민주당 후보와의 여론조사 결과, 박 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했다는 점을 이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도 박 후보가 민주당에 입당하기 보다는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한다는 응답이 월등하게 높았다.

이를 반영하듯,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살림정치 여성행동’ 창립 마당에 참석한 자리

에서 “(후보)등록일이 6~7일이기 때문에 입당여부가 결정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입당 여부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서 당선되는 것이 물론 중요하다”며 “그렇지만 지금의 현실과 정치를 바꿔달라는 시민의 요구에 부응해서 어떤 길이 좋은지 판단하는 것이 민주당 입당 여부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여 선대위 오늘 발족...박근혜 ‘깜짝지원’ 기대

### 나경원측 “앞으로 단촐하게 움직일 것”

한나라당은 6일 오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선거사무소에서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지원 진용을 구축한다.

선대위 관계자는 5일 “나 후보의 선대위 구성은 대부분 당 지도부가 중심이 돼서 인선을 결정했다”며 “특히 김경권 사무총장이 당내 중진 의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선대위 참여를 독려했다”고 말했다.

당의 선대위 구성안을 보면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서울지역 3선인 권영세·박진·원희룡 의원과 서울시장 위원장이 이종구 의원이 내정됐다.

총괄선대본부장에는 재선의 이성현·진영 의원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비서실장은 강승규 의원, 대변인은 신지호·안형환·이우아 의원으로 내정됐으며 홍준표 대표를 비롯해 정몽준 전 대표, 특임장관 출신의 이재오 의원이 선대위 고문을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역 4선급 이상 전원이 선대위에 합류한 셈이다.

아울러 외부 인사를 선대위 요직에 발탁하는 방안도 유력하다.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이 선대위 위원장 또는 고문을, 또 다른 시민사회 대표자가 공동 선대본부장을 맡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의 선대위 참여는 나 후보의 의사가 적극 반영된 것이다.

친박(친박근혜)계 이성현 의원과 친박 성향의 권영세 의원이 선대위 핵심에 자리하면서 박근혜 전 대표의 전폭 지원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표가 6일 출범식에 ‘깜짝 방문’을 할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직접 현장을 찾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전 대표는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13일경부터는 선거 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민주 전남도당 5곳 재보선 후보 확정

민주당 전남도당은 오는 26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광역 제1선거구 도의원 후보에 정현수(48) 합평청년회의소 회장과 장성 제2선거구 도의원 후보에 이준호(42) 삼계면 청년회장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또한 기초의원인 무안군 가 선거구 후보에 이병호(51) 현경바다영농조합 감사, 장성 다 선거구에 천승욱(59) 전 장성 남면 농협조합장, 화순 다 선거구 후보에 양정승(46) 전 화순군수 정무비서를 각각 확정했다. 민주노동당도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광역의원인 장성 제2선거구에 한승철(45) 한마음공동체 부대표이사를 후보로 확정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청목회 사건 국회의원 벌금형·선고유예 최규식 500만원·강기정 90만원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강용환 부장판사)는 5일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이하 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의원들에 민주당 최규식 의원에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강기정 의원에게는 벌금 90만원과 추징금 99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돼 있어 이 형이 확정되면 최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재판부는 이밖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에게는 벌금 20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

고 추징금 208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한나라당 조진형·유정현·권경석 의원에게는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고 추징금 10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여야 의원들에게 이처럼 전원 유죄를 선고했으나 민주당 최규식, 강기정 의원을 제외하고는 일정이간이 지나면 선고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 의원과 강 의원에게 회계 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관련 의무규정 위반에 대해서도 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지만 이는 의원직 상실에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cki@kwangju.co.kr·연합뉴스

### “무례한 글 사과” 이동관, 박지원의원에 또 문자

이동관 대통령 언론특보는 5일 전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의 일부 표현을 놓고 서로 신경전을 벌였던 민주당 박지원 의원에겐 “사과 메시지”를 휴대전화로 보냈다. 이 특보는 문자메시지에서 “전화 안 받으셔서 문자 올립니다. 지도 섭섭한 감정에 격해 무례하게 비칠 수 있는 글 보낸 점 사과드립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탓 없다는 생각도 있었구요, 너그럽게 화투세요”라면서 “저와 박 선배님이 그럴 사이입니까. 선배님 건승입니다”고 덧붙였다.

이 특보는 또 “이건 공개 안 하실 거죠? ㅎㅎ”라는 내용의 두 번째 문자 메시지도 발송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이날 국감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다시 한번 이 특보를 공격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사무실 임대

금남로 4가 구, 삼성생명 건물  
구, 중앙교회 건너편

- 지하 1층~지상 6층
- 층별 94평 (분할가능)

병원, 학원등  
다양한  
업종가능

대형 주차장 완비

문의 062-953-5511  
010-3617-8810

## 남성 성기능강화제

본제품은 왕라, 복분자, 구기자, 갈근 등 20여가지의 한약재로 제조하였으며, 특히 왕라는 허브의 일종으로 자양강장역할을 하여 다미아나 혈관과 호르몬계의 도움이 된다. 단백질을 저장하는 힘을 돕고 근육을 강하게 해준다는 류큐나프린스를 주성분으로 하여 원활히 공급함으로써 당신의 자존심을 지켜줍니다.

설명이 필요없습니다. 직접 드셔보시고 확인하세요.

설치방법 및 제품특성

- 평소에 발기는 되나 지속성이 없거나 조루가 있는 분들은 성관계 전 약 2-3시간전에 1정을 섭취하면 1-5일까지도 지속할 수 있습니다.
- 발기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분들은 1일 4정을 3-7일 정도를 연속으로 섭취하시면 발기가 잘됩니다.

문의 전화 010-7705-2535 주문즉시배송 무료배송

### 현대공인중개사

토지 매매

- ▶ 자연녹지(물류창고, 공장직합) 광산구비어동, 비아 IC에서 5분거리, 11,463㎡(3,468평) 3.3㎡당 70만원
- ▶ 계획관리지역 (물류창고, 공장 기타용도가능) 광산구 송학동, 나주 IC에서 3분거리, 21,914㎡(6,630평) 매매가 22억
- ▶ 계획관리지역 (전원주택, 연수원 공장, 창고, 투자, 기타) 광산구 양동, 용성저수지 확원근로, 28,845㎡(8,726평) 대지 94800평, 건축물 있음, 매매가 13억
- ▶ 준주거지역 (병원, 서울, 임대용상가건물신축부지적합) 화정동, 광소간도로변, 지하철역부근 대지1,520㎡(460평) 3.3㎡당 300만원

수익성 좋은 상가건물 매매

- ▶ 풍양동, 지상6층건물, 보증금1억2천만원 월920만원 매매가13억5천만원
- ▶ 용봉동 지상4층 보증금2억2천월810만원 매매가13억

수익성 좋은 다가구 주택

- ▶ 화정동, 4층건물, 원룸10실, 투룸3실, 스리룸2실, 4층 본인 거주 보증금3천 월400만원 매매가15억8천만원

공장 건물 매도

- ▶ 광산구 우산동, 광주공영 인근 대지2,975㎡(900평) 건평 594.5㎡(180평) 매매가18억

<근구> 수익성 좋은 상가건물, 토지

■ 본 광고물건은 전속 계약된 물건임 ■

T. 062)371-1900, 010-2006-0115  
사무 우리병원에서 50m지점 www.88858949.co.kr

### 수원지구 상가 임대 전문

학원·병원  
한의원·고급식당  
1층 근린생활 2층~7층 까지  
20평 부터 200평 까지  
분양·임대가능

국민은행뒤 대방2차  
정문 (5,000세대)  
신한은행뒤 모아엘가  
아파트 (5,000세대)  
롯데마트앞 대방5차  
후문 (7,000세대)

즉시입주가가능 시비없음

신한공인중개사 ☎ 062)961-3377

###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다와옥션컨설팅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근린시설

- 북구 오치동 3층상가주택 대지58평 건평112평
- 김장기2억6천만 최저가1억8천만
- 동구 동명동 조대앞 4층고시원 대지66평 건평145평
- 김장기4억8천만 최저가3억8천만
- 서구 생촌동 3층다가구 대지70평 건평147평
- 김장기4억2천만 최저가2억9천만

단독주택

- 광산구 운남동주택 대지 223평 건평 28평
- 김장기2억4천만 최저가 1억7천만

근린주택

- 서구 능성동 3층상가주택 대지99평 건평155평
- 김장기4억5천만 최저가 3억1천만

상가매매

- 남구 월산동 4층상가주택 대지 34평 건평 76평
- 1층상가 2-3층다가구 4층인접(도시가스,리모델링) 매매가 2억5천만(조정가)

토지매매

- 무안군 해례면 천장리 임야 1200평 진입로있음
- 관리지역(일부 전) 매매 평당3만5천(조정가)
- 신안군 지은면 고장리 외기해수욕장앞 101평
- 계획관리 매매 평당20만원

광주 남구 월산동 구 서부경찰서 사거리  
T. 010-4911-4989 FAX. 062-226-3607